

장류 · 주류산업, 도약 발판 마련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대표 중국제품 국내 최초 HACCP · GMP 인증업체 지정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이하 진흥원)의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순창 대표 발효미생물인 중국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업체로 지정받았다.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대표 노석범, 이하 미생물센터)는 HACCP 지정업체 지정으로 HACCP와 GMP(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를 모두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어 순창 발효미생물(종균) 제품의 식품안전보장과 품질고급화에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HACCP를 지정받는 품목인 중국은 된장, 고추장, 간장과 같은 장류제조 뿐만 아니라,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제조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

되는 식품첨가물인 발효종(스타터) 미생물 제품으로 발효식품의 품질과 맛, 위생안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필수 소재다.

중국은 전통 장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아플라톡신 발생 억제효과와 탁주, 전봉주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의 당화력 및 발효주의 향미 부여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효식품의 반도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중국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중에는 HACCP 지정업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미생물센터는 순창산 쌀만으로 중국 제품을 100% 제조하고 있으며, 장류 중국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중에는 HACCP 지정업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하여 판매 · 공급하고 있다. 중국을 제조하는 미생물센터의 제조라인은 최첨단 무균공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과학적인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한 고상발효(Solid-State Fermentation) 시스템이다.

최영일 이사장은 "이번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GMP와 HACCP를 지정받아 국내 발효미생물산업의 식품위생안전과 품질고급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발효식품 생산기업에 우수하고 안전한 발효제 · 발효소재를 공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창의 우수 발효미생물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순창을 발효미생물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남원시

남원시는 지난 11일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농업인대상 시상식 등을 간소하게 진행했다.

농업인 상생플랫폼에서 열린 농업인대상 시상식은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 · 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해당 분야에 공적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 40여년의 영농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이영면 이광덕 씨가 '식량작물 부문', 지리산 고행지 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육성하여 운봉상추 발전에 기여한 윤봉을 소순모 씨가 '원예 부문',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 등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에 기여한 대산면 신춘호 씨가 '축산 부문', 체계적인 산지유류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공산출회회를 육성 및 확대 운영하여 농산물유통 발전에 기여한 금지면 문성호 씨가 '농산물유



농업인대상 수상자들

또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장 김종필, 남원시 원예산업과 이금연,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농정지원단장 유은실님이 남원시 농업인단체협의회로부터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았다.

이밖에도 남원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유기농 백미 10kg 50포대를 시에 기증했으며, 학생들에게 배베로데이로 익숙한 농업인의 날을 재조명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가래떡 나눔 행사를 추진하는 등 의미 있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11월 현안회의 개최

남원시는 지난 11일 현안보고회를 진행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간부들에게 동절기 종합대책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돼있는 시민들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시장은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수립돼있는 예산 등을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대책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학생들이 당일 원활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이날 간부들에게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열릴 제 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적극대응과 함께 이밖에도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및 2024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대해 재 언급하며,

"조례는 물론 각종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여러 절차들이 남아있는데, 특별히 예산보영 등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인 논리개발과 산업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해 "2023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별히 2024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부서장들은 내년 5월까지 다양한 정책적 개발과 부처와의 소통, 공역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건기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보상

222개 농가에 피해보상금 1억6300만원 지급... 보상 · 피해 예방 '총력'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보상과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0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222 농가에 피해보상금 1억6,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 건수는 222건으로 피해 면적은 42만7,800㎡이다. 지역별로는 강진면이 30건을 가장 많고 이어 임실읍 28건, 관촌면 26건, 청음면 25건, 삼계면 24건, 운암면 19건, 신덕면 16건, 성수면 16건, 신평면 14건, 덕치면 14건, 오수면 8건, 지사면 2건 등이며 대부분 멧돼지로 인한 피해로 밝혀졌다.



구황작물이 5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벼 46건, 옥수수 43건, 복숭아, 사과, 배 등의 과실수 42건, 기타 35건 등의 작물 피해가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 피해 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선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에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은 읍 · 면사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순해사정사의 현장 조사 후 군으로 접수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멧돼지 출몰 시에는 임실군청 환경보호과(063-640-2353, 2356)로 신

순창군

지난 11일 순창군 향토화관에서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주관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신영이 순창군의 회 의장, 관내 시·도단체장과 농업인 8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 경제의 바탕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면서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1996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 특강 농업발전 유공자 시상, 가념사, 추사 순으로 진행



됐다. 수상자로는 조래정 순창군 농촌지도자회 총무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으며 11개 각 읍면을 대표한 농민과 지역농협 직원 2명 등 총 13명이 순창군수 표창패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